



인터뷰

지역 최초 지도사업 대상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

2023년 3월 광주농협 제14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김순택 조합장이 3년여 동안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보는 김 조합장을 만나 주요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경제·신용사업 동반 성장...건실한 농협 만들겠다”

▲지난 3월 농협 종합업적평가·지도사업 대상 수상 소감과 의미는?

-이번 수상은 협동조합 정신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늘 믿고 응원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농·축협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지표인데 광주농협이 서비스 강화와 내실 경영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농업인 소득 향상이라는 농협의 핵심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지도사업 대상’을 지역 최초로 수상하게 돼 경영성과와 조합원 혜택 증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광주농협 로컬푸드 사업 특징·성공 요인은?

-광주농협은 2013년 광주지역 최초로 두암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한 이후 매곡점, 문화점, 동광주점, 일곡점, 충효점, 오지점 등을 잇따라 열며 현재 총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선함’을 핵심 경쟁력으로 채소류의 경우 진열 기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250건 이상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당일 수확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으로 이어지며 매출 상승으로 연결됐다. 실제로 2025년 매출은 139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로 다양

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도매시장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추, 고추, 열무 등 약 25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상품 구성을 위해 관외 농가에도 출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9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70여 곳에 달한다.

광주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농산물 출하를 확대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충효점을 중심으로 정정 농산물 판매를 확

“

‘현장 중심 경영’ 성과...전국 최고 수준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농가 모두 만족

장학·복지 확대 등 발전 위한 비전 제시

”

대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

▲최근 고유가, 이상기후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 등 ‘삼중고’에 직면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 보조와 임대사업을 병행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농업 체험 시범

포와 신제품 현지화 시범포를 운영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의 목표는 3가지다. 첫째 농업 생산 지원을 강화하겠다. 품질높은 영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둘째 조합원과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쓰겠다. 조합원과 지역민의 객장방문 및 이용에 대해 더 편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 셋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건실한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생산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신용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

또한 조합원과 지역민의 균형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 일례로 지난 1988년부터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역시 대상자 57명을 선정해 총 5천1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농협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조합원과 지역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안태호 기자

산림자원으로 수입 의존 화장품 원료 대체

전남산림연구원-아로마티카 업무협약
천연오일 K-뷰티 제품·산업화 본격화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최근 ㈜아로마티카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의 비교우위 난대 산림자원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활용해 케이(K)-뷰티 화장품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약 5~6%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까지 약 8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 시장 역시 2025년 약 11조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

다. 그러나 주요 원료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 원료 대체가 시급하다.

원료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가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원은 전남의 다양한 산림 수종이 분포해 있고 특히 향작용 산림자원이 풍부해 원료 확보와 산업화에 유리한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테라피 기반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로 에센셜오일 원료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국가 이상의 해외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7%의 글로벌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완도 등 남부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생달나무의 에센셜오일 등을 활용한 향장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원료 발굴부터 제품화와 시장 적용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 산림바이오소재의 실질적 활용과 산업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산 산림원료 활용 제품화 및 산업화 ▲산림 유래 천연오일 화장품 적용 연구 ▲원료 대량생산과 국산화·단가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은 “아로마티카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에 전남의 산림자원 연구 역량이 결합한 사례로 K-아로마테라피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4월 전통주 ‘광양매실막걸리’

장기 저온 발효 공법...향·산미 일품

전남도는 4월 ‘이달의 전통주’로 광양(주)백은주가의 탁주인 ‘광양매실막걸리’를 선정했다.

2025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품질을 인정받은 광양매실막걸리는 엄선한 쌀과 광양 특산물인 매실을 원료로 빚은 알코올 도수 7%의 프리미엄 막걸리다.

장기 저온 발효 공법을 적용해 매실 고유의 은은한 향과 산미를 살렸으며 저온 숙성 특유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주원료인 매실은 유기산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다. 광양



매실막걸리는 이러한 매실의 특성을 잘 살려 뛰어난 맛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전통주로 주목받고 있다.

백은주가는 매실,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다양한 전통주를 생산하는 전문 양조장이다. /김재정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